

1천 교회, 1만 신앙공동체, 10만 제자를 주님께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I. '1,000 Church, 10,000 Faith Community, 100,000 Disciples' 무엇인가?

이름 정하기(Naming): 비전이 담기고 시대를 반영하며 공감하기 쉬운 이름 정하기

일천교회, 일만공동체, 십만제자

일천교회 운동?

일만신앙공동체 운동?

십만제자운동?

무엇이 핵심고리인가?

무슨 문제가 풀려야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개체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

목표가 분명하고 항상 확인하고 평가가 가능한 운동

### 1. 개요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약 300여개의 교회와 3200여개의 소그룹(속회, 목장, 샐터, 셀, 구역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다면 약 4만 7천여명의 주일 출석인원과 그에 대비한 약 3만여명의 장년출석인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07-2008 아시안목회센터(Center for Pan Asian-American Ministries)가 발행한 한인교회/목회자 주소록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전국연합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교회와 개체교회 교인의 감소추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회의 부흥, 성장에 대해 뜻을 모아왔다.

- 10여년간 계속되어 오는 개체교회와 교인 감소 현상을 더 이상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 교단내 한인 목회자들의 숫적인 증가도 배가되었으며, 이제는 거의 300명에 가까운 한인 목회자들이 타인종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100여명의 여성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소재한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의 수가 감소되었고, 이와 함께 교인의 수도 감소되었다. 한인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대도시지역에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온 대표적인 한인교회로서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위상은 대부분 실추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각 지역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보고서(2006. 4) 중에서

뉴욕, 시카고, L.A, 상항, 보스턴 등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여파는 새로운 교회개척이나 다른 교회의 성장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왔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미국 주류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을 극대화시키지도 못하였으며, 한인이민교회의 역사적 현장에 가장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성이나 사역의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했음은 그저 개체교회 혹은 목회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누구의 책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인이민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인총회는 지난 수년간 "부흥과 성장"이라는 주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들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총회에서 "5년 500개 교회, 10년 1,000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과 논의한 결과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라는 비전을 제시하므로 교단이 추구하는 제자화라는 커다란 목표와, 목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서신, 2008년 8월 5일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를 주님께' 중에서

## “ 천교회, 일만공동체, 십만제자 캠페인 개요 ”

### 비전 Vision

300 교회, 30,000 성도에서 1,000 교회 100,000 성도로 성장하기 위한 10,000 신앙공동체 세우기

### 핵심가치 Core Value

-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삼기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ransformation of the World
- 소그룹에 참여하는 100,000 세례입교인  
Participating 100,000 members in Small Group Ministry
- 잃은 영혼, 작은 영혼, 마지막 영혼을 위한 성서적 선교와 전도사명에 충실하기  
Be Faithful to Biblical Mission and Evangelism for the Lost, the Least, and the Last
- 사용가능한 모든 연합감리교 교단 자료를 동원한 신앙공동체 운동  
Maximize All United Methodist Connectional Resources for KUMC Faith Community Movement

### 목적 Objective

1000개 한인연합감리교회  
10명 단위로 모이는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한인연합감리교회 세례입교인(제자)

### 요약 Summary

- 1) 기간: 2009-2020 (12년)
- 2) 목표: 1천 교회 세우기 1,000 Churches
- 3) 전략: 1만 신앙공동체 만들기 10,000 Faith Community
- 4) 영향력: 10만 제자 양육하기 100,000 Disciples

이전에도 일천교회 10만성도와 같은 구호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도 했으나 현재 한인감리교회의 모습은 총체적이고 생동감있는 교회개척 전략의 승리보다는 개척자 개인의 헌신과 연합감리교회 조직과의 불안정한 연결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자리잡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실정에 부합하고, 기존교회의 강화, 갱신에서부터 교회개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일천교회로 성장하자는 구호에서 내실있는 일천교회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최근 새롭게 개척된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파트너십 지원, 분립개척 등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맨땅에 헤딩하던 목회자 개인중심의 개척에서, 팀개척, 연회, 한인교회, 목회강화협의회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개척하는 교회(보스턴 비전교회), 모교회로부터 인적, 재정적,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도움을 받는 지교회 혹은 파트너교회 개척 모델(뉴난한인교회, 데쿨라한인교회)이 그것일 것이다.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전세계적으로 온누리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이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목회모델을 공유하는 것,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사랑의 교회가 지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일천교회운동은 이미 개척되었으며, 자립하고 있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구호에 불과한 캠페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 또는 한인이민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역이 이 운동의 출발지점이 될 것이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 2006년부터 2년여간 소그룹 목회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교회나 한인이민교회, 세계 어디를 보아도 현재의 성장하는 교회들은 소그룹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은 대표적인 소그룹목회를 웨슬리의 속회, 밴드, 연합신도회 모델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개체교회 소그룹(속회, 셀, 샵터, 목장, 구역)을 강화하면서 건강한 제자,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개척의 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 2. 일천교회-일만공동체운동의 성격

### 1) 웨슬리 신앙운동이다.

- 감리교인이란 시대의 선교적 사명에 따라 거듭 요한 웨슬리를 다시 생각하는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웨슬리는 Methodist 운동의 목적을 '영국 교회를 참된 교회로 개혁하는 것'(to reform the Church of England)과 '민족을 개혁하는 것'(to reform the nation) 그리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throughout the land)이라고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서신,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를 주님께' 중에서

### 2) 평신도 제자화 운동이다.

- 연합감리교회의 존재목적은 “예수 제자 세우기”(To make disciples of Jesus)이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예수 제자 세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예수 제자 세우기”라는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또한 거룩한 부름에 순종하는 목회자/성도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순종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보고서(2006.4) 중에서

### 3) 영성훈련(경건/성화)이다.

- 요한 웨슬리는 성서적 경건을 제시하면서, 개인적 경건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는 은혜의 삶, 사회적 경건으로 예수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나눔/섬김의 삶을 강조했다. 또 웨슬리는 개개인 삶의 자리가 사회적 정황과 만나는 은혜/나눔/섬김의 삶을 마침내 살아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감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보고서(2006.4) 중에서

### 4) 신앙공동체 운동이다.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교회를 갱신하고,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자연히 기존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신앙공동체/소그룹에서 교회라는 조직적인 형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 건강한 신앙공동체 - 소그룹사역을 기본으로

감리교회 소그룹 사역

연합감리교회 소그룹 사역

한인연합감리교회 소그룹 사역

왜 소그룹인가?

제자를 양성하는 소그룹

삶의 변화

영성훈련

신앙운동

웨슬리로 돌아가자

5) 교회의 부흥운동이다.

일천교회, 일만신앙공동체 운동은 십만제자를 양육하는 제자화운동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이며, 이 속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그룹을 강화하는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교회개혁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작은 신앙운동 단위가 되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총체적인 연대성(Connectionalism)은 제자는 소그룹에서, 소그룹은 반드시 건강한 개체교회와 연결되어 부흥과 교회개혁의 꿈을 이루어가는 부흥운동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 II. 교회 현실과 시대적 필요성

### 1. KUMC의 현실

- 1) 300 교회 3만 성도-교회의 소/ 중/ 대형 교회의 분포도
- 2) 목회자 중심 개혁운동의 한계
- 3) 자원(인적, 물질)을 집중하는 선교 전략 부재
- 4) 이민사회에서 감리교회의 위상과 영향력 약화(교회 목회자와 성도간의 갈등)

#### - 연합감리교회 현황

2004년 상반기까지 연합감리교회 교인 수는 미국 내 800여만 그리고 해외에 190만명 정도이다. 미국내 43,000여명의 목회자(은퇴교역자 포함)가, 연합감리교회 내 35,000개 정도에 이르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1890년부터 1965년 동안에는 미국인 15명 중 1명이 연합감리교회 교우였으나, 2000년 현재는 29명 중 1명만이 연합감리교회 교우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는 세 배(300%)로 증가된 반면, 연합감리교인 수는 약 절반(50%)으로 감소되었다.

1960-2000	인구증가	교인증가/감소
TX+	118%	15%
GA+	108%	19%
FL+	222%	40%
IL	23%	-45%
NJ	38%	-40%
MA	23%	-48%
CA	116%	-42%
USA	56%	-22%

연합감리교회 현황(성장/정체)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 성장(장학순 목사) 중에서,

2008년 현재 300여 한인연합감리교회 정도의 숫자와 전체 KUMC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는 이번에 추산된 자료를 기본으로 운동의 큰 틀을 제시해 보아야 하겠다.

- KUMC가 관심 가져야 할 많은 어젠다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문을 닫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이미 15여 년 전에 500 교회 10만 성도 캠페인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KUMC는 부흥과 성장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시절에 비해 이민자의 인구가 지역에 따라 50%에서 200% 가까이 성장을 했지만 KUMC 교세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감소되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의 미래, 5년 500교회 10년 1,000 교회 캠페인’ 중에서, 2008 한인총회자료집

■ **한인연합감리교회 현황** ■

- ①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 숫자 288개, 소그룹 숫자 3174, 주일출석인원 47380 으로 추산되었다. 교회숫자는 2007-2008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아시안 태평양 목회센터 (CPAAM)가 발행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소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새롭게 개척된 교회와 영어권 회중 등 주소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으며, 소그룹과 주일출석인원은 류계환 목사가 개인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 ② 출석인원 150명을 기준으로 약 100명의 성인교인, 10개 정도의 속회 혹은 셀 등 소그룹이 있다고 계산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의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소그룹 숫자 중에는 활동적이지 않은 그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현재 3000개의 소그룹이 있다고 계산했으며, 주일출석인원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포함된 것이므로 약 30,000명의 성인교인이 있다고 계산하였다. 또한 주소록에 포함되지 않은 교회를 포함하면 300개 교회, 3000 소그룹, 30,000 제자의 수치가 보다 현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 ③ 한인총회 중앙위원회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더욱 현실적인 수치를 이번 회의기간 중에 고쳐 준다면 더욱 정확한 기록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연회나 선교구 단위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다.
- ④ 추후에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위해 연회에 가입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경우, 각 지역연회 기록을 바탕으로 개체교회 교인, 출석, 주일학교, Youth, 예, 결산 규모 등을 집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매년 초 각 지역연회록이 발간된 후 집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지역	한인교회	소그룹	주일출석	성인교인	제자
AL	2	10	200		
AK	1	2	30		
AZ	2	10	200		
AR	2	7	150		
CA	55	550	8000		
CO	5	40	600		
CT	3	30	450		
DE	1	10	250		
FL	8	80	1100		
GA	11	200	4000		
HI	10	150	2000		
IL	19	150	2000		
IN	2	10	200		

**1,000 Church, 10,000 Faith Community, 100,000 Disciples**

IA	4	20	300			
KS	3	15	300			
KY	4	15	300			
LA	2	10	200			
ME	1	3	100			
MD	5	40	700			
MA	6	40	700			
MI	6	80	1800			
MN	3	40	550			
MO	1	2	30			
NV	1	2	30			
NH	1	10	150			
NJ	25	400	6500			
NM	1	2	30			
NY	34	400	5000			
NC	4	20	400			
OH	9	70	800			
OK	4	40	500			
OR	2	10	100			
PA	7	50	600			
RI	1	10	200			
SC	2	20	300			
TN	3	30	500			
TX	20	300	4000			
VT	1	5	50			
VA	9	240	3500			
WA	5	40	500			
WV	1	1	10			
WI	4	20	250			
KUMC	288	3,174	47,380	07-08	CPAAM Directory	
<b>2008 - 2009</b>	<b>300</b>	<b>3,000</b>	<b>Attendance includes in youth and children.</b>	<b>30,000</b>	<b>30,000</b>	<b>Current</b>
2012	300+50	4,000		40,000	40,000	
2014	300+100	5,000		50,000	50,000	
2016	300+200	6,000		60,000	60,000	
2020	1,000	10,000		100,000	100,000	Vision

## 2.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심 확대

-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7:20)는 말씀처럼, 그 사역의 결과로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열매가 얼마나 많으나 적으나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로 평가되어야 한다.
-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는 것은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느냐에 달렸다.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인 만인제사장의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교회 내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은사에 따라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다. 그런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이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 예수께서는 깊은 교제 - 건물이 아닌, 코이노니아 - 에 근거한 공동체를 지으려고 하셨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막 14:58)”  
김덕수, [셀교회전환과 셀리더세우기] 중에서
-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돕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다.  
고든 코스비, [Becoming the Authentic Church] 중에서

## 3.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경건/성화)훈련과 삶의 변화

- 본 웨퍼(Bonhoeffer) - 아무리 진실하고 진지하고 거룩할지라도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을 넘어서 어떤 것을 꿈꿀 때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본웨퍼, [신도의 공동생활] 중에서
- 교회의 핵심사명은 삶의 변화이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의도적인 관계(intentional relationships) 속에서 일어난다. 소그룹은 기존체계에 덧붙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이 교회 문화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런 변화는 핵심 지도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앤디 스탠리,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교회의 성장비결] 중에서
-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  
고든 코스비, [Becoming the Authentic Church] 중에서

### III. 성경적 원리와 교회의 전통

#### 1. 성경적 원리, 신학적, 교회사적 근거

##### - 성경적인 공동체의 기원

**구약에서의 공동체** :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 1:26)”-삼위일체의 하나님, 공동체로의 교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시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온 인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해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1:27) 하나님은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

**신약에서의 공동체** : 예수께서 12명을 제자 삼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공동체는 열두 족속으로 구성된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9족속 반 정도만 남은 상태이다. (Robert Stein)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열두명으로 제자단을 만든 것은 열둘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기 위함으로, ‘제자단’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는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였다 (일부 제자 훈련가들이 말하는 제자훈련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김덕수, [셀교회전환과 셀리더세우기] 중에서

##### -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의미있는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다. 이 구절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앤디 스탠리,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교회의 성장비결] 중에서

##### - 예수께서 열둘을 세운 이유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kerysso-proclaim)도 하며(막 3:14)” 설명하는 것처럼 전도라는 사역에 앞서 그들은 함께 있어야 했다.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는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제자훈련반’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지적했다

랄프 네이버, '셀교회지침서' 중에서

#### 2. 교회의 전통

##### - 웨슬리가 속회, 신도반, 선발 신도회, 참회반 등 다양한 소그룹을 조직한 이유는 “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한상호, [직고를 통한 소그룹 부흥] 중에서

##### - 1739 년 브리스톨 신도회의 집회와 교육을 위해 건축한 집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신도회는 모

든 신도회를 12 명씩 한 그룹으로 나누고 지역 단위의 조직이 신도회 회원들의 돌봄과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영감을 얻고 이를 “속회”(Class Meeting)라는 명칭으로 제도화 하게 되었다.

- 보다 깊고 분명한 유대관계를 원했다. 그러한 요구가 bands(반)을 발생시키게 하였다. 웨슬리가 헤른후트를 방문했을 때 그는 거기서 모라비안 조직의 치밀성을 보았다.

박용호, [돌봄의 속회와 교회성장] 중에서

- ‘밴드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성화의 단계에 들어선 헌신된 성도들로 소그룹을 조직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소그룹에서는 헌신된 성도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변화되지 못한 교인들이 머무르는 ‘목장’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재’ 중에서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302]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①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등록된 입교인 12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22]제28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 한국감리교회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회개혁의 훌륭한 전통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속회 2곳을 구별하여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담임자를 파송받는 경험이 있다.

## IV.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기존 교회개혁 모델로는 안 된다  
 목회자만으로 되지 않는다  
 소그룹 사역이 기본이다  
 소그룹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제자는 신앙공동체에서 성장한다  
 건강한 소그룹이 교회의 기초단위이다  
 제자와 신앙공동체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 1. 개체교회의 소그룹사역 강화

--> 소그룹 강화, 리더십 훈련

- 건강한 제자가 건강한 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제자를 번식시키면 교회가 번식한다.

건강한 제자, 리더, 교회, 마지막으로 운동 순서로 나아가야 한다.

닐콜, '오가닉처치' 중에서

-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 관심이 되는 문화가 필요하다.  
 '권리'보다는 '소명'을 회복  
 '감리교회'라는 네임브랜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모두 노력  
 부흥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체질, 문화, 그리고 네임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자. 개척하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목회자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김정호, '부흥하는 한인 교회들! 그들을 통해 생각하는 부흥을 위한 디딤돌' 중에서
  
-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신자가 됐을때 우리가 했어야 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하고 자신이 양식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되 주중에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영적 경건을 행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빌 하이빌스, 윌로우크릭교회
  
- 프로그램이 아닌 영적인 경건훈련을 통해야 하며 그것은 성경읽기, 기도, 기타 개인적인 헌신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윌로우크릭교회, <REVEAL: Where Are You?> 중에서

## 2. 단계별 실천

- 비전공유기** 300 교회, 3,000 소그룹, 30,000 장년성도
- 2008년** 일천교회 운동 vision sharing, 2009년 연차총회 결의, 지역연합회/연회 캠페인시작  
 기존 선교교회 전략평가 - 교회재개발, 개척 다양한 모델마련
- 
- 비전실행기** 350 교회, 4,000 소그룹, 40,000 장년성도 (4년동안 50개의 새교회 개척)
- 2009-2012** 건강한 소그룹 - 신앙공동체 지도자 훈련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 - 소그룹 사역 강화, 영성훈련  
 Youth/Children's Ministry 소그룹 사역, TG 소그룹 사역  
 교회개척 위한 평신도지도자 훈련  
 영성프로그램 (Walk to Emmaus - KUMC version)  
 건강한 소그룹은 복음전파에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데 관심을 가진다.
- 
- 부흥체험기** 400 교회, 5,000 소그룹, 50,000 장년성도 (4년동안 200개의 새교회 개척)
- 2013-2016** 500 교회, 6,000 소그룹, 60,000 장년성도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뿌리내리고, 소그룹이 교회개척으로 연결되도록  
 1 속회 1 선교지 전략에서 1 속회 1 선교교회 전략으로  
 소그룹은 교회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며, 도와주는 신앙공동체  
 개체교회내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사역 (나이, 프로그램, 영성훈련 등등)  
 개체교회내 소그룹 중에서 교회개척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소그룹 양육  
 독자적인 교회개척모델에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가지는 교회개척으로

**부흥발전기** 1,000교회, 10,000 소그룹, 100,000 장년성도 (4년동안 500개의 새교회 개척)

**2017-2020** 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개척, 지역핵심교회가 1년에 1개 교회개척  
 8년 동안 개체교회는 교회개척을 위해 소그룹사역을 지도자를 훈련하고 세운다.  
 8년 동안의 신앙운동을 통해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브랜드이미지를 분명히 한다.  
 교회개척과 건강한 소그룹사역에 관심있는 목회자 지도력을 개발한다.

### 3. 교단, 지역, 교회별 실천

- 소명의식(Calling Model) 회복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

다양한 전도/홍보 전략 수립

현재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선교교회를 포함한 미자립교회 현황 진단

교회 성장과 부흥 모델 제시

한인 인구 이동에 따른 교회개척

대표성을 지녔으나 정체된 교회들을 의식적으로 활성화

이승우,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의 거침돌과 디딤돌' 중에서

#### 1)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 임원회/ 중앙위원회 비전 나눔

1,000 교회 운동 본부 결성

매년 총회에 운동현황 및 결과 보고

우수전도자 시상, 전도훈련 (장로, 권사, 집사)

총회결의(2009년 4월 총회) - 예산, 조직, 방향성 등

전국단위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

목회강화협의회와 함께 소그룹사역, 교회개척사역 강화

교회개척학교 - 목회자, 평신도

선교교회 목회자학교

#### 2) 지역연합회 / 선교구 혹은 규모가 큰 지역은 연회 단위

지역단위 비전나눔

1000 교회운동 지역본부 결성 - 지역단위 운동사항 진행보고

2008-2009년 지역연합회 핵심과제로 설정, 2009-2020 중장기 계획 수립

건강한 소그룹 사역 위한 지도자 훈련

교회학교 지도자 훈련, 중고등부 지도자 훈련 - 소그룹 사역 지원

전도학교, 목회자 / 평신도 전도훈련

#### 3) 개체교회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제자운동 캠페인 준비

소그룹 리더 훈련 - 제자훈련, 영성훈련

건강한 소그룹을 기본으로 한 목회계획  
 은 교우의 소그룹 참여  
 교단/연합회/연회 차원의 전도훈련, 전도 캠페인

4) 개체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1000교회 운동

소그룹 참여 - 다양한 소그룹 구성, 리더훈련, 제자훈련, 영성훈련  
 전도캠페인 - 전도훈련, 소그룹 전도실천  
 나눔과 섬김의 사역 - 지역사회 다양한 선교사역에 참여 (사회적 실천편 참고)

30,000 성도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헌금 (개척헌금) - 선교교회 목회자 설교

개인헌금 : 1인 \$1 \* 12 개월 \* 30,000 명 = \$ 360,000  
 교회헌금 : 개인 헌금액수에 Matching 100% = \$ 360,000  
 2009년-2011년 매년 \$ 720,000을 한인연합감리교회개척기금으로 헌금

2012년 40,000명 \$ 40,000 \* 12 = \$ 480,000 \* 2 = \$ 960,000  
 2014년 50,000명 \$ 50,000 \* 12 = \$ 600,000 \* 2 = \$ 1,200,000  
 2016년 60,000명 \$ 60,000 \* 12 = \$ 720,000 \* 2 = \$ 1,440,000

5)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총회기관 - 교단총회/지역연회

소그룹 지도자 훈련 교재 개발, 훈련  
 소그룹 활동 위한 자료개발  
 전도훈련 자료개발  
 교회개척 매뉴얼 준비  
 전국적 대회 지원 - 소그룹 사역 중심, 교회개척 준비  
 “한인총회, 전국지도자대회, 목회자 학교, 각종 연차대회를 소그룹 사역, 교회개척 준비를 위  
 해 집중”

6) 10,000 신앙공동체 운동 지역핵심교회

30개 정도의 지역핵심교회 선정  
 지역핵심교회는 지역내 일천교회, 일만신앙공동체 운동확산의 거점이 된다.  
 개체교회에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다.  
 건강한 소그룹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

동북부 - 보스톤 성요한, 후러싱제일, 베다니, 뉴저지연합, 체리힐제일, 델라웨어, 워싱턴

동남부 - 와싱턴, 워싱턴제일, 아틀란타한인, 아틀란타임마누엘, 남부플로리다, 찰스톤,  
 내슈빌, 탬파, 팔리

중남부 - 달라스중앙, 좋은씨앗, 성루가, OK

중북부 - 디트로이트, 시카고제일, 시카고남부, 미네아폴리스, OH, IN

서부 - 그리스도, 윌셔, 드림, 동부, 벨리, 샌디에고, 산타클라라, 타코마제일, CO

#### 4. 사회적 실천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운동을 통해 교회의 부흥, 성장운동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할 사회적 실천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통한 신앙공동체 형성, 개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이라는 대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캠페인을 함께 벌여 나감으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성도의 삶과 말씀, 변화된 생활을 연결시켜 나가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주류교단으로서의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인지도는 여러 교회, 교단과 비교하여 결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여 동안 총회 공보부와 여러 지역연회, 개체교회는 이그나이팅사역 (Igniting Ministry)을 통해 교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전히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뉴욕, 뉴저지, 워싱턴, 아틀란타, 달라스, 하와이, 산호세 등)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지역(LA, 시카고, 상항, 보스톤 등)도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역사적으로 한인이민교회와 이민사회를 지원하고 도와온 교단이다. 사실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점으로 하와이 연차총회를 거쳐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전국적인 교단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제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캠페인 - 주류교회와 연결, 지역교회협의회 공동예배, Igniting Ministry
- 지역사회 학교 지원 - adopt your school 교회인근지역, 저소득층 지역 등등
- 지역사회 선교 Backyard Mission - 히스패닉 사역
- GBGM Justice Mission - 이민상담 봉사, 이민정책 변화위한 서명캠페인
- 기타 교회의 대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캠페인

사례)

- 1) 가톨릭 '내 탓이요' 캠페인 운동, 사회봉사를 통한 이미지 개선
- 2) 기독교대한감리회 '희망 프로젝트'
- 3) 섬김과 봉사(순복음교회 '사랑의 지팡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 5. 교회개혁의 새로운 모델

준비된 지역내 소그룹을 통한 교회개혁  
 평신도 사역자와 소그룹을 통한 교회개혁  
 은퇴목회자와 신학생이 함께하는 교회개혁

타인종교회 한인목회자의 교회개혁

기존교회의 분립개혁 - Teaching Church Model 모교회-지교회, 준비된 소그룹 개혁

-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2기의 교회개혁 비전과 전략  
교회개혁을 위한 선교적 사명에 동의하는 20개의 교회가 언약적 관계를 맺어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와 선교구가 함께 협조하여 15개의 한인교회를 4년 동안 개혁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한인집중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개혁전략을 수립하며 사명과 능력이 출중한 개혁사역자 발굴과 양성을 지원한다.
- 지도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차후 4년간 250명의 목회자와 1,000명의 평신도를 전문소그룹 사역자로 양성한다.

장학순,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되는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한 비전과 전략' 중에서

- 330만 불 규모로 청원된 목강협의 3기 예산은 전체교회의 선교분담금 납부비율과 행정비등을 감안할 때 실제 프로그램 경비는 2기와 비슷한 2백 20만 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회기와 비교할 때 현저히 변화하는 내용은 우선 한인교회를 위한 평신도와 목회자 지도력 개발 예산을 현재의 20%에서 35%로 증가시켜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목강협 사역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회개혁과 지난 회기에 개혁된 교회의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은 45%에서 40%로, 차세대목회 예산은 25% 비율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총회에 청원된 제 3회기(2009-2012) 한인목회강화안과 예산' 중에서

## 6. 총체적인 소그룹사역과 일천교회운동

장년 소그룹 사역은 온 교인의 참여를 기본으로 확장시킨다.

예) 장년 소그룹 사역 - 주일예배-소그룹예배, 제자훈련과 지도자훈련은 소그룹리더를 위해  
어린이 소그룹 사역 - 주일학교교육과 다른 교육프로그램의 소그룹 단위 사역, 교사, 학부모  
중고등부 소그룹 사역 - 성경공부, 중고등부 리더십을 소그룹 사역으로 연결, 교사, 학부모  
청장년 소그룹 사역 - 청장년 예배, 소그룹 사역, 제자훈련은 리더교육으로

## V. 문제제기와 새로운 결단 -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러한 교회개혁의 경험이 별로 없다.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성공적인 소그룹 사역의 모델이 많지 않다.

제자훈련은 있었지만 소그룹 사역 리더를 위한 좋은 훈련경험이 부족하다.

없던 길을 새롭게 여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속회 혹은 소그룹 분립개혁의 경우들이 많았다. 운동은 참여를 원하는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지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그룹 사역 성공의 기준치가 애매하다. 웨슬리적 전통을 다시 살펴보자. 건강한 소그룹 사역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여전히 개체교회 담임목회자의 주된 관심이다. 개체교회 현장에서 사용되었으며, 검증된 자료를 활용, 사용한다.

#### 2008년 9월 중앙위원회 주요내용

- 한인 감독님과 리더들을 통해 듣는 연합감리교회의 방향과 한인 교회의 정체성
- 각 기관 사역자들을 통해 듣는 연합감리교회의 사역 현황과 한인 교회의 나아갈 길
- 1,000 Church /10,000 Faith Community /100,000 Disciples 캠페인 실행 계획
-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의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토의

####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주요 일정

2008년 4월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총회 (아틀란타, 조지아)  
 현장개정,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출범, 500교회, 1000교회 비전 제시

2008년 5월 연합감리교회 총회 (포트워스, 텍사스)

2008년 9월 한인총회 중앙위원회 개최 (잉글우드, 뉴저지)  
 '1,000 Church/ 10,000 Faith Community/ 100,000 Disciples' 캠페인 제안

2009년 4월 한인총회 연차대회 (LA, 캘리포니아)

#### 다시 보는 캠페인 주요 일정

##### 비전공유기 2008-2009

2009년 현재: 300 교회, 3,000 소그룹, 30,000 장년성도  
 일천교회 운동 vision sharing, 2009년 연차총회 결의, 지역연합회/연회 캠페인  
 기존 선교교회 전략 평가 - 교회재개발, 개혁의 다양한 모델 마련

##### 비전실행기 2009-2012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뿌리내리는 시기

2012년 목표: 350 교회, 4,000 소그룹, 40,000 장년성도 (4년 동안 50개의 새교회 개척)  
 건강한 소그룹 사역 - 복음전파에 열심, 새 생명을 낳는데 관심가지는 운동  
 소그룹 사역 강화 - 리더 훈련, 영성훈련 (Walk to Emmaus - KUMC version)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 - 소그룹 사역 강화, 교회개혁 학교  
 Youth/Children's Ministry 소그룹 사역, TG 소그룹 사역

##### 부흥체험기 2013-2016 건강한 소그룹 모델이 교회개혁으로 연결되는 부흥의 시기

2014년 목표: 400 교회, 5,000 소그룹, 50,000 장년성도 (4년동안 200개의 새교회 개척)  
 2016년 목표: 500 교회, 6,000 소그룹, 60,000 장년성도

##### 부흥발전기 2017-2020 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 개혁, 지역핵심교회는 1년에 1개 교회개혁

2020년 목표: 1,000 교회, 10,000 소그룹, 100,000 장년성도 (4년 동안 500개의 새교회 개척)  
 8년 동안 개체교회는 교회개혁을 위해 소그룹사역을 지도자를 훈련하고 세운다.  
 8년 동안의 신앙운동을 통해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브랜드이미지를 분명히 한다.  
 교회개혁과 건강한 소그룹사역에 관심있는 목회자 지도력 개발